

외교부 :

미국 , 지역 안정과 발전에 도움되는 실질적 일 많이 해야

미국측 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서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발언했다는 보도가 최근 나왔다. 이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 궤가곤은 4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진영대결은 력사의 흐름과 발전 대세에 위배되므로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지역의 안정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일을 많이 할 것을 충고한다고 밝혔다.

궤가곤은 “중국측은 관련 보도를 주목했다.”면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은 주권·독립 국가

로 다른 나라들이 이래라저래라 해서도, 월가알부해서도 안되며 더우기는 공개적으로나 암암리에 압박을 가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항상 상호존중, 평등호혜, 개방포용, 협력상생의 원칙을 견지하며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들과 우호적 협력을 펼쳐 랑측 국민의 복지를 강력히 증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궤가곤은 “진영 대결을 하는 방식은 력사의 흐름과 발전 대세에 위배되므로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잘못된 길에서 점점 더 멀어져서는 안돼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는 최근 뉴욕에서 ‘국제관계에 미치는 일방주의와 괴롭힘 행위의 충격’을 주제로 안보리 비공식회의를 열었다. 외교부 대변인 궤가곤은 4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상황을 소개했다. 궤가곤은 “대다수 참가국들은 다자주의를 견지할 것을 촉구하고 미국이 회의에서 전달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우려와 강렬한 외침을 직시하기를 희망했다.”면서 “미국은 잘못된 길에서 점점 더 멀어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 신화넷



‘관세쓰나미’, 아프리카 경제에 치명타



3월 19일, 레소토 수도 마세루의 아프리카박람회 방직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생산작업을 하고 있다. / 시각중국

미국은 최근 레소토에 이른바 ‘상호관세’를 50%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아프리카 남부의 소국 레소토는 유엔이 인정한 최빈국중 하나로 한때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의해 ‘아무도 들여본 적이 없는’ 곳으로 묘사됐다. 이 발표는 섬유 수출에 의존하는 레소토를 골치 아프게 했다.

대체로 규모가 작고 발전 수준이 낮으며 경제구조가 단일한 아프리카경제체는 1차 상품인 원자재의 수출에 의존하는 등 특징을 보인다. 외부 리스크에 대응하는 력량이 상대적으로 약한 리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바 이러한 특징은 특히 수출 주도형 경제체에서 뚜렷하게 나

타난다. 유엔이 인정한 세계 46개 최빈국중 아프리카 국가는 33개에 달한다.

이들 국가와 미국간 무역 규모가 매우 작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교역의 ‘상호관세’를 강제 부과했다. 이에 미국 언론은 트럼프정부의 ‘무역손해론’이 황당무계하다고 비판하면서 레소

토는 1인당 매년 평균 3달러를 들여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한다고 지적, 이는 그들이 미국을 리용해 리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 전 사무총장 카를로스 로페즈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현행의 국제무역체제를 기반으로 의류, 방직, 경공업 제조, 농산물 가공 등 수출 주도형 산업을 발전시켰으나 이 산업들은 관세 충격에 취약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오히려 벌을 받고 있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미국의 관세정책은 아프리카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아프리카 국가의 수출이 감소되면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고 자국 통화가 평가절하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수입 상품의 가격을 간접적으로 끌어올려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상승시킨다. 수출로 인한 수익이 감소되고 거시경제 전망이 악화되면 일부 아프리카 국가의 채무 상환 능력을 악화시키고 채무위험을 격화시켜 국가 신용 위기를 쉽게 초래해 이들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 조달 능력을 한층 더 악화시키게 된다.

잠재적 영향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의 관세 장벽은 아프리카 기업들이 수출을 통해 기술 업그레이드와 산업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축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산업화를 저해한다. 결국 이들 국가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 신화넷

김정은, 조선 해군 신형 구축함 진수식 참석



김정은이 구축함 ‘최현호’에서 부대를 시찰하고 있는 장면

/ 신화넷

조선중앙통신의 4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로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은 4월 25일 남포조선소에서 열린 새세대 다목적 공격형 구축함의 진수식에 참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5,000톤급 신형 다목적 구축함은 ‘최현’급으로 명명되었으며 당일 진수된 이 첫번째 군함은 ‘최현호’로 명명되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현은 조선 군사활동가이자 조선 무장력의 원로라고 보도했다. 최현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과 중앙인민위원회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었다.

김정은은 진수식에서 조선의 자위국방기술의 집성체인 이 구축함은 대공, 대함, 대잠, 대탄도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음속 전략순항미사일, 전술탄도미사일 등 폭삭 타격 작전능력을 최대로 강화할 수 있는 무장체계들이 탑재

되어 다목적 수상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주권과 국가 리익을 수호하기 위해 조선 해군의 활동수역이 령해에만 머물러서는 안되며 반드시 원양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형 구축함의 진수는 조선 해군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가 첫걸음을 확실하게 내디뎠음을 의미한 것으로 해군 강화의 첫번째 ‘신호탄’이 될 것이라면서 행동력 잠수함 건조사업이 두번째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이제 구축함은 함성능과 작전수행능력 평가, 통합장비운영 시험 등 필요한 공정을 거쳐 래년초에 해군에 인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래년에도 이런 급의 전투함선들을 건조할 것이며 다른 모델의 순양함과 호위함들도 건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금 함선 총설계를 마감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제방송

조선, 로씨야에 파병 참전 첫 확인

쿠르스크지역 수복 협조

조선 무력부대가 로씨야 쿠르스크 지역을 수복하는 작전에 참가했으며 작전은 “승리적으로 종결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월 28일 보도했다. 이는 조선이 처음으로 로씨야 파병 참전을 확인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4월 27일 서면성명을 인용하여 조선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조선 무력부대는 로씨야 쿠르스크지역 수복 작전에 참가해 로씨야 령토 수복에 중대한 공헌을 하였고 작전은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과 조선과 로씨야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전했다.

성명은 쿠르스크지역 수복 작전의 승리적 종결은 “조선과 로씨야 두 나라 사이의 굳건한 전투적 우의와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동맹관계, 형제관계의 가장 높은 전략적 높이를 과시한 력사의 새로운 장이다.”고 지적했다.

/ 신화넷

이재명, 한국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한국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이재명이 4월 2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당내 대선 후보 조선 결과 이재명후보가 89.77%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해 당내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그의 두 후보인 경기지사 김동연은 6.87%, 전 경남지사 김경수는 3.3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윤석열 탄핵 결정을 내렸고 윤석열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해임됐다. 법원에 따르면 한국은 반드시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거행해야 한다. 4월 8일, 한국정부는 6월 3일을 차기 대통령 선거일로 공식 확정했다. 이재명은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4월 27일,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한국 고양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신화넷

주당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한국 매체는 이재명이 절대적인 우세로 당내 경선에서 네번 연속 승리했는데 이는 그가 여러 소송사건에 연루되었지만 그의 지지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 신화넷

세계 각지, ‘세계 태극권의 날’ 맞아 축하 행사



1999년부터 매년 4월의 마지막 토요일이면 세계 각지의 태극권 애호가들은 자발적으로 태극권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세계 태극권의 날’을 경축, 공연·교류 등 형식을 통해 태극권 문화를 보급하고 서로 다른 국가와 지역의 문화 교류와 리해를 추진한다.

2025 ‘세계 태극권의 날’ 행사는 4월 26일 로므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의 헬레스트레우공원에서 열렸다. 100여명의 태극권 애호가들이 행사에 참여, 당시 많은 민중과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관람하였다.

/ 신화넷

◀ 4월 26일, 태극권 애호가들이 로므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세계 태극권의 날’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 신화넷